

OCTOBER 2021 VOL.636

hyangjang

A woman with long, dark, wavy hair is sitting and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She is wearing a white, long-sleeved button-down shirt with a wide collar.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10월의 필수템

SPECIAL 나이트 케어의 모든 것

MAKEUP PLAY 47가지 컬러의 스모키 메이크업

AMOREPACIFIC

02	NEWS 10월의 가장 핫한 뉴스
06	NEWS-TREND 다양한 스모키 메이크업
08	MAKEUP 돌아온 90년대 헤어 액세서리
14	PRODUCT 환절기를 위한 뷰티템
20	SPECIAL 나이트 케어의 모든 것
28	MAKEUP PLAY 4가지 컬러의 스모키 메이크업
32	PRODUCT 설화수
34	PRODUCT 헤라
36	PRODUCT 프리메라
38	PRODUCT 헤라 블랙 쿠션 쿠튀르
42	ISSUE 눈가를 지겨라
44	GROOMING 남자의 피부 고민별 솔루션
46	ICON 10월의 인테리어
50	PLACE 지금 가장 핫한 디저트집
52	REVIEW 간간한 품평단의 꼼꼼 리뷰
54	ESSAY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
56	EDITOR'S PICK 10월의 강추템

SINCE 1958
〈항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636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발행 통권 636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 콘텐츠&서비스팀
인쇄 (주)태신인팩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항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HYANGJANG JOURNAL

Fringe: 사랑살랑, 걸을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프린지 장식 없이는 이번 가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다.

editor LEE SUNG JIN

날씨가 추워질 때쯤이면 슬슬 모습을 드러내던 모피의 자리를 대신해줄 것들이 F/W 시즌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포근한 니트와 폭신한 패딩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프린지다.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프린지는 모피의 글래머러스하면서도 우아한 감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프린지를 가장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스커트 밑단을 장식하는 것. 펜디는 속이 비치는 시스루 원피스 끝에 긴 프린지를 장식해 관능미를 부각시키고, 지방시는 반짝이는 드레스에 프린지를 달아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줬다. 에르메스 역시 세련된 브라운 원피스 하단을 프린지로 장식해 이국적인 이미지를 더했다. 보다 화려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에트로의 퍼플 케이프나 실버 프린지를 단 록의 블랙 드레스를 참고할 것. 메탈릭하고 긴 프린지는 약간의 움직임에도 다채로운 반짝임을 드러내며 매력을 뽐낸다. 프린지는 우아함을 드러내기에도 모자람이 없다. 전면에 거대한 올 프린지 장식을 더한 펜디의 캐멀 컬러 아우터웨어는 따스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갖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유행이라 할지라도 움직일 때마다 치렁거리는 프린지 자락이 거슬린다면 가방이나 신발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끌로에는 커다란 가죽 가방에 긴 화이트 프린지를 늘어뜨렸고, 이자벨 마랑은 세련된 토트백에 땅에 끌릴 만큼 긴 프린지를 달아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마저도 썩 내키지 않다면 약세서리로 착용해볼 것. 약속이라도 한 듯 많은 쇼에서 선보인 프린지 이어링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으니 말이다. 거대한 원석 아래 프린지를 매단 랑방의 이어링이나 미러볼이 연상되는 록의 네크리스 하나면 심플한 옷차림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에트로의 이국적인 이어링이나 샤넬과 이자벨 마랑의 어깨까지 닿는 길쭉한 이어링 역시 이번 시즌 놓쳐서는 안 될 머스트해브 아이템이 될 전망이다. 긴 이어링은 중성적인 옷차림에 세련된 이미지를, 화려한 파티 룩에 글래머러스한 느낌을 더해준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묶거나 생머리로 늘어뜨리는 것이 웨이브 헤어보다 더 세련되어 보인다. **LD**





칭찬받아 마땅한 멋진 브랜드

스텔라 매카트니가 낙관적이고 활기차며 다채로운 시각으로 퍼 프리(Fur Free) 패션의 정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2021년 가을 캠페인 '우리의 시대가 왔다'를 공개했다. 국제 동물 보호 단체 HSI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스텔라 매카트니의 이번 컬렉션 중 80%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것. 현재까지 영국 패션 하우스에서 내놓은 컬렉션 중 지속 가능성 면에서 최고 수준이다. 캐나다 브랜드 무스너클 역시 2022년 말까지 천연 모피 제품 생산의 전면 종료를 포함한 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맞서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며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환경과 인력,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고자 하는 혁신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의 스텔라 매카트니(02-3427-8561), 무스너클(www.mooseknucklescanad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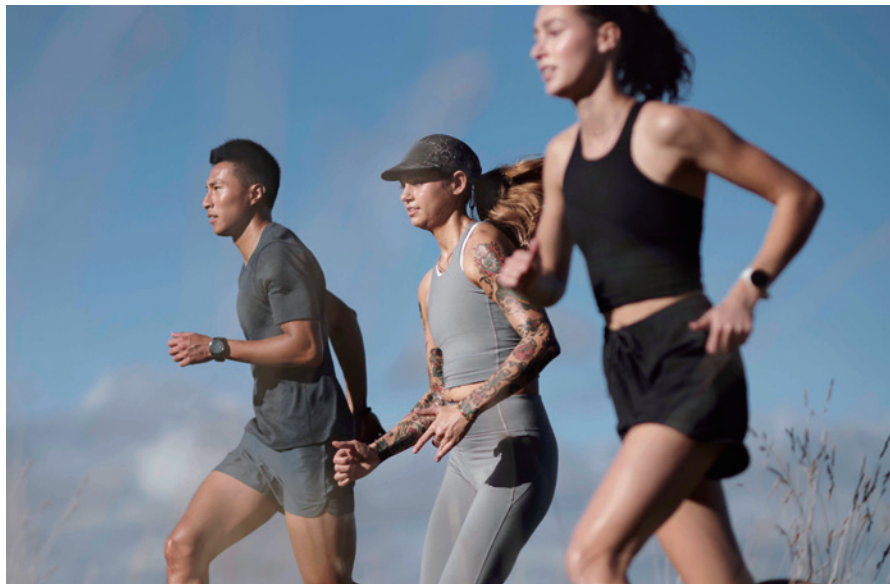
세계 최초로 만나는 360도 감성 체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공간지각의 오감을 모두 자극해볼 기회가 생겼다. 여의도 더현대 서울 ALT1 갤러리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몰입형 전시 <비욘더로드>는 20여 년 동안 <슬립노모어> 같은 공연을 기획해온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콜린 나이팅게일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티븐 도비, 세계적인 뮤지션 제임스 라벨의 협업으로 제작되어 음악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초현실적 경험을 제공한다. 33개의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보며 1백여 개의 스피커로 구현한 환상적인 사운드와 음악, 몰입도 높은 영상과 시각 효과를 만끽할 수 있다. 문의 미쓰잭슨(02-3277-0610)



보석 같은 여자에게 빛나는 선물을

이번 가을,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일상에 활기를 더해보자. 스와로브스키의 '큐리오사'는 완벽한 비율과 기하학적 구조가 돋보이는 컬렉션으로, 입체적인 큐브, 피라미드, 구 형태의 이어링과 각테일 링으로 구성된다. 만화경 속에서 반사되는 패턴과 컬러처럼, 하나의 스톤에서 오묘한 두 가지 색을 느낄 수 있다. 골든듀의 '자델드모네'는 색채와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물의 정원'을 고풍스러운 액자 프레임에 담아낸 펜던트. 키네틱 아트를 콘셉트로 한 이중 회전 프레임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스와로브스키(1522-9062), 골든듀(1588-6576)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도 살리는 퍼포먼스 웨어

지난 2016년 설립된 이후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신발을 선보이며 마크 저커버그, 엠마 왓슨 등 셀러브리티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급성장한 올버즈. 유칼립투스에서 추출한 섬유를 활용한 트리 컬렉션, 게딱지에서 추출한 키토산 섬유로 만든 티셔츠 등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소재로 만든 제품을 선보여온 올버즈가 환경을 중시하며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퍼포먼스 웨어 '내추럴 런' 컬렉션을 선보였다. 통기성과 흡습성, 신축성이 탁월한 풋웨어 '대서'를 시작으로 티셔츠와 쇼츠, 탱크톱 등의 라인업을 구축했는데, 모두 ZO 인증 메리노 울, FSC 인증 나무 유래 소재 등 브랜드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천연 소재와 리사이클링 소재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문의 allbirds.co.kr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호캉스

사랑하는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소식. 포시즌스 호텔 서울이 투숙객에게 애견 텐트를 설치해주고 펫 용 어메니티와 간식 등을 제공하는 '펫 포 올 시즌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반려견과 외출 시 펫 캐리어를 선물로 제공하며 룸서비스 이용 시 반려견 먹이도 주문할 수 있다. 펫 콘셉트 룸이 있는 비스타 워커히 서울의 '오 마이 펫' 패키지는 다양한 편의용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촬영용 의상도 준비해 '견생샷'을 찍어주기도 좋다.

문의 포시즌스 호텔 서울(02-6388-5044), 비스타 워커히 서울(02-2022-0000)



홈스토어를 완성해줄 훌륭한 보조 세프

홈쿠파를 더욱 편리하게 해줄 똑똑한 신제품이 눈길을 끈다. 코렐의 '인스턴트팟 듀오 쿼진'은 기존 인스턴트팟의 압력 요리, 찜, 볶음, 밥, 보온, 슬로 쿠커, 요거트 기능에 수비드 기능을 더했다. 브레빌의 '브레빌 3X 블루서 BJB615'는 주서와 블렌더를 하나로 합쳐 사과나 샐러리 같은 단단한 식품도 빠르게 분쇄해주고, 1.5L의 보관 용기와 3L의 펄프 배출 컨테이너를 갖춰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한 번에 많은 양을 착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문의 코렐(02-2670-7800), 브레빌(02-3452-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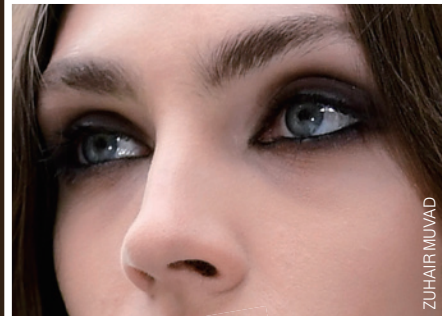


한층 자유로워진 스모키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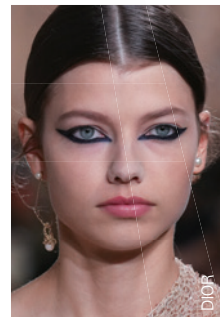
매년 가을과 겨울이면 어김없이 사랑받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몇 시즌을 이어온 레트로 트렌드와 만나 더욱 자유분방해졌다.

변진 듯하게 혹은 깔끔하게, 아니면 색을 더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한 이번 시즌의 스모키 메이크업.

editor LEE SUNG 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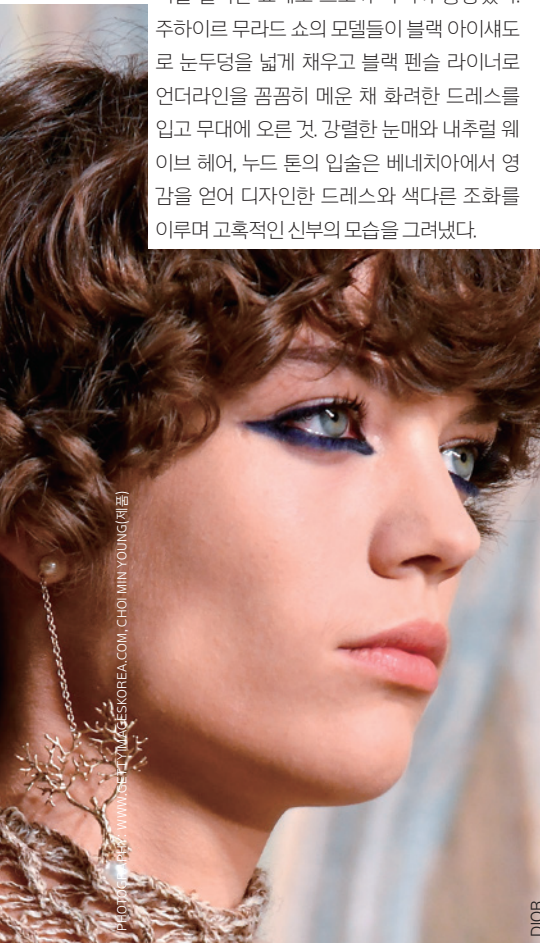


헤라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 #79 블랙, 1.4ml, 2만8천원..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의 여파일까, 한동안 아이 메이크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눈가를 빙 둘러 색으로 채운 스모키 메이크업이 대세다. 형태도 다양하다. 디스코풍의 스모키 아이부터 미래적인 느낌의 실버 스모키까지, '스모키'라는 카테고리만 유지한 채 다양하게 변주된 모습으로 등장해 눈을 즐겁게 한다. 펜슬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번진 듯한 느낌으로 연출한 스모키 아이는 소녀 같으면서도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선명한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활용한 록은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아이새도만으로 표현한 스모키 아이는 몽환적이면서도 섬세한 이미지를 완성한다.

다양한 록 가운데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은 1990년대의 영향을 받은 그런지 스모키 록. 빅토리아 베컴을 비롯해 이자벨 마랑과 에트로의 모델들은 블랙 펜슬 아이라이너를 위아래 아이 라인에 번진 듯 발라 1990년대 소녀 같은 느낌을 연출했다. 심지어 사랑스러움이 생명인 브라이트 컬러 섀도도 스모키 아이가 등장했다. 주하이르 무라드 쇼의 모델들이 블랙 아이새드로 눈두덩을 넓게 채우고 블랙 펜슬 라인으로 언더라인을 꼼꼼히 메운 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것. 강렬한 눈매와 내추럴 웨이브 헤어, 누드 톤의 입술은 베네치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드레스와 색다른 조화를 이루며 고혹적인 신부의 모습을 그려냈다.



한편, 샤넬과 디올은 약간 변주한 스모키 록을 선보였다. 언더 아이라인을 길고 두껍게 그려 1960년대에 유행한 디스코풍 메이크업을 완성한 것. 마치 이번 가을겨울 시즌 트렌드인 캐치 아이와 스모키를 접목한 듯한 느낌이다. 컬러를 활용한 스모키 메이크업도 눈길을 끈다. 마크 패스트의 모델들은 다소 미래적인 트렌드와 스모키 메이크업을 접목해 반짝이는 실버 스모키 록을 선보였고, 데이비드 코마의 모델들은 블루 아이라이너로 깔끔한 스모키 록을 완성했다. 지암바티스타 발리의 모델들은 그린, 퍼플 등 색색의 컬러로 눈두덩이와 언더 아이라인을 넓게 채운 팝아트풍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렇듯 다양한 시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공통점은 정교한 피부 표현과 누드 톤 입술이다. 대부분 잡티 없이 매끈한 피부와 깔끔하게 정돈한 입술로 눈으로 가는 시선을 방해하지 않은 것. 컨실러로 눈에 띄는 잡티를 가린 뒤 피부 톤을 정돈하고 유분을 없애줄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 바르고 매끈한 누드 톤 립스틱으로 마무리하면 한결 세련된 스모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립스틱은 번진 듯 퍼뜨리기보다 깔끔하게 바르는 것이 더 잘 어울리니 기억해둘 것. 스킨 아파렐리 쇼의 모델들처럼 립스틱보다 한참 어두운 색의 립 라인으로 입술 선을 강조한 메이크업도 등장하긴 했지만 현실에서 접목하기엔 어려울 듯하다. 립스틱과 유사한 컬러의 립 라인으로 입술 선을 깔끔하게 정돈한 뒤 립스틱을 채워 바르는 방법도 있다. 만약 특별한 곳에 가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있거나 고혹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면 폴 코스텔로 쇼의 모델들처럼 레드 립을 선택해보길. 불러서는 되도록 생략하거나 브라운 혹은 코랄 계열로 은은하게 표현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35ml, 6만원.



HAIRPIN

큐빅이나 진주를 촘촘히 박은
헤어핀부터 메탈릭한 빅 핀까지
다양한 헤어핀이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유행 중이다.
헤어라인을 따라 가지런히 꽂거나
정수리 부분에 꽂아볼 것. 눈에는
헤라 색도 듀오 #06 라이커블을,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린제리를 발라 화려한
액세서리에 얼굴이 묻히지 않도록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그때 그 시절

1990년대에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헤어 액세서리가 돌아왔다.

엄마에겐 추억의 물건이자 MZ 세대에겐 핫한 트렌드인

그때 그 액세서리.

photographer CHOI MOON HYUK
editor CHOI HYANG JIN



SCRUNCH

'곱창밴드'란 이름으로 더 친근한 머리 끈이 아이돌이 사용하며 핫한 헤어 액세서리로 떠올랐다. 예전에는 포니테일로 낮게 묶을 때 사용했다면, 지금은 업두 헤어나 하이 포니테일을 장식할 때 쓰는 것이 이전과 달라진 점. 펑키한 느낌을 주는 곱창밴드로 스타일링을 했다면 메이크업 역시 붉은 계열의 헤라샤페도 듀오 #11 원섬,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77 케미스트리를 발라 룩과 톤을 맞추도록.

BIG HAIRBAND

드라마 <토마토>의 김희선과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심은하의 공통점은? 바로 헤어밴드. 마치 왕관처럼 커다란 헤어밴드 역시 지금 MZ 세대가 열광하는 헤어 액세서리. 청순한 생머리에 둘러도 좋지만 러프하게 묶은 머리, 캐츠아이와 매치하면 색다른 느낌이 난다.





MODEL: OUI JI WON,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CLAW CLIP

대충 꼬아 올린 머리를 단단히 고정해줘 집어서도, 외출할 때도 유용한 일명 집게핀 역시 요즘 스트리트 룩을 장악한 대세 아이템. 다양한 스타일의 업두 헤어는 물론 반묶음 머리에도 잘 어울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화장은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면 청순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헤라새도 듀오 #01 보니를 연하게 바르고, 입술에는 nude 톤의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39 로즈 베일을 발라보길.

10월의 뷰티 위시 리스트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조한 가을바람이 몸과 피부를

괴롭히는 지금, 건강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도와줄

가을의 머스트해브 아이템을 모았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SUNG JIN

설화수 진설명작에센스, 40ml, 80만원.

설화수 진설명작크림, 60ml, 80만원.

#프레스티지안티에이징

#인삼의생명력

#젊음의에너지

설화수 진설명작에센스 & 크림

설화수가 50여 년에 걸친 인삼 연구 결과를 응집해 만든 역작. 엄선한 영지에서 찾은 젊음의 에너지로 피부층을 견고하게 만들고,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액티브인삼셀™로 노화의 흔적을 줄여준다. 진설명작크림에 든 S-파이토알렉신은 스트레스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진하고 탄탄한 텍스처는 얼굴 위에서 부드럽게 녹아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고, 피부 방어력을 높여줄 향은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어준다.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8ml×4ea, 20만원.

#고농축안티에이징앰플

#윤택하고매끄러운피부

#8주집중케어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더운 여름과 불안정한 환절기를 거쳐 건조한 가을바람을 맞닥뜨리면 피부 상태가 제자리를 찾을 틈 없이 흐트러지기 마련. 이때 꼭 필요한 8주 케어 안티에이징 앰플이다. 핵심 성분은 인삼, 감초, 당귀, 천궁, 대조로 만든 명의진™. 끊임없는 외부 자극에 지친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힘을 더해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린다. 끈득한 텍스처가 피부를 빈틈없이 감싸 촉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거친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개선해준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나이트 엘릭시어.
3mlX16ea, 48만원.

#다원의보석
#나이트마스크
#보석같은영양광채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나이트 엘릭시어

1년 중 단 한 번, 가장 건조한 동절기를 앞둔 이맘때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특별한 나이트 안티에이징 제품. 단 하룻밤만 써도 다음 날 피부가 윤기와 광채로 가득 채워지는 마법같은 나이트케어 솔루션이다. 다원의 보석과도 같은 고귀한 차나무 씨 오일과 피부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컨트롤하는 애플루티™ 성분이 결합하여, 혹독한 겨울 밤에도 피부를 보석같이 아름답게 지켜줄 수 있는 에너지를 선사한다. 영롱한 골드 파우더를 함유한 엘릭시어 텍스처는 부드럽게 녹아 들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보습, 영양, 광채와 더불어 안티에이징 고민을 두루 해결해 줄 것이다.

구달 파리 뽀띠뜨 쉐리 트라이얼 세트, 뽀띠뜨 쉐리 EDP 10ml + 유니버설 바디 크림 20ml + 벨벳 파우치,
구달 파리 페뉴 드 스와레 트라이얼 세트, 페뉴 드 스와레 EDP 10ml + 페뉴 드 스와레 바디 크림 20g + 벨벳 파우치,
구달 파리 에뚜왈 된 뉘 트라이얼 세트, 에뚜왈 된 뉘 EDP 10ml + 유니버설 바디 크림 20g + 벨벳 파우치,
각 3만8천원.

#스몰럭셔리
#센스있는선물
#37지매력

구달 파리 트라이얼 세트 3종 : 뽀띠뜨 쉐리 & 페뉴 드 스와레 & 에뚜왈 된 뉘

구달 파리의 베스트셀러 향수와 각 향에 어울리는 바디 크림, 고급스러운 파우치까지 모두 담아낸 기프트 세트. 사용할 사람의 이미지와 매칭되는 향을 골라 선물하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더욱 센스 있게 마음을 전하기에 제격이다. 사랑스러운 핑크 파우치에 담긴 뽀띠뜨 쉐리는 발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의 소유자, 섹시한 퍼플 파우치에 담긴 페뉴 드 스와레는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 신비로운 그린 파우치와 세트를 이룬 에뚜왈 된 뉘는 치명적인 관능미를 지닌 여성에게 추천. 함께 구성된 바디 크림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면 더욱 풍성한 향기가 오래도록 지속된다. 특히 처음 선보이는 유니버설 바디 크림은 구달 파리 조향사가 설계한 특별한 바디 크림으로, 은은한 시트러스&머스크 향이 어떠한 향수와 매칭해도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헤라 UV 미스트 쿠션. 15g×2ea, 6만원.

#리치글로우
#하이커버
#24H커버글로우™



헤라 UV 미스트 쿠션

건조하고 잡티가 눈에 띄는 피부를 빛이 흐르는 무결점 피부로 만들어주는 쿠션 컴팩트. 마이크로 피팅 베이스™가 마이크로 입자로 들뜸 없이 피부결을 고르게 정돈하여 24시간 커버와 윤기가 지속*되는 리치글로우 하이커버 피부를 연출해 준다. 콜라겐, 히알루론산, 펩타이드로 구성된 스킨케어링 콤플렉스, 마이크로샷™은 더욱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 준다. 윤기와 커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설계된 퍼프와 광택이 감도는 패키지도 인기 요소 중 하나다.

*시험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 시험대상자: 만 30~50세의 성인 여성(n=31) | 시험기간: 2021.04.20 ~ 2021.04.23

바이탈뷰티 명작수. 20g×30앰플, 16만원.

#홍삼의명작
#인삼뿌리와열매까지
#프리미엄홍삼앰플



바이탈뷰티 명작수

인삼의 뿌리와 열매(부원료)를 모두 담아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프리미엄 홍삼 앰플. 인삼을 6000기압의 압력으로 찌서 말리는 천삼화 기술로 완성한 홍삼 농축액에 부원료로 4년에 걸친 인삼의 생애에서 단 한 번 얻을 수 있는 인삼 열매를 더해 신체 본연의 생기를 깨운다. 식약처에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력을 통한 혈액 흐름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의 5대 기능성을 인정받은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첨가물 없이 부드럽게 맛을 내어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가을밤, 침대 곁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밤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피부의 미래는 각기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다음 날, 빛나는 피부로 눈뜨게 해줄 **나이트 케어 루틴**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CHOI MOON HYUK(인물),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시간 전, 콜라겐 충전하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너 뷰티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5천억 원을 돌파하며 2011년 이후 8년 만에 10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 가운데 꾸준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콜라겐.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피부를 원하는 열망에 힘입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콜라겐 제품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잘 만든 제품을 제시간에 챙겨 먹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제 잠들기 1시간 전, 샤워하기 전을 콜라겐 타임으로 정해두고 꾸준히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떨까.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실제로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빠르게 몸속으로 흡수시켜줄 제품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 골드르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받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피부 탄력과 보습, 거칠기 개선 효과를 확인한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한 제품. 액상 저분자 콜라겐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속부터 촉촉하게 가꿔준다.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피부 기능성을 인정받은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가 주원료인 콜라겐 앰플. 여기에 비오틴, 셀렌도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으며, 부원료인 비타민 C를 더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가꿔준다. 저분자 콜라겐으로 흡수가 빠른 것도 장점이다. 25ml×30앰플, 11만원.

40분 전, 민감한 곳까지 편안하게 세정하기

매일 하는 샤워에도 노후가 필요한데, 특히 요즘 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보다 현명하게 샤워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유·수분 밸런스를 깨지 않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38℃ 정도의 물로 10분 안에 끝낼 것, 겨드랑이나 가슴 등 피부가 접히는 곳 위주로 부드럽게 씻을 것, 스크럽 제품을 활용한 각질 제거는 주 1회 정도로 제한할 것, 샤워 불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할 것 등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Y존 세정이다. Y존은 피부 장벽이 얇고 다른 곳보다 투과성이 높아 자극이나 세균에 취약하다. 따라서 연약한 피부는 보호하고 Y존 밸런스를 맞춰주는 전문 제품을 찾는 것이 급선무. 프리메라의 후리애프터리는 Y존의 피부 장벽을 보호 세정해주는 약산성 세정제로, 자극 없이 냄새를 없애고 예민한 Y존을 편안하고 위생적으로 지켜준다.



프리메라 후리애프터리
여성의 피부에 유익한 그린티 프리바이오틱스 발효 용해물로 Y존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겔은콜로이드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 약산성 포몰러의 젤 타입 세정제로 Y존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200ml, 2만7천원.

30분 전, 부드러운 바디 크림으로 힐링하기

샤워 후 온몸에 바디 크림을 두껍게 바르는데도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면, 바디 크림을 바르는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샤워 후 3분 이내에, 피부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야 보습 효과가 높아지고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오일이나 버터 성분이 든 제품이 좋고,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얇게 몇 번에 걸쳐 덧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샤워실에 바디 크림을 두고 샤워 후 수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구말 파리의 페뉴 드 스와레 바디 크림처럼 향기로운 제품을 사용하면 침실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구말 파리 페뉴 드 스와레 바디 크림
실크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듯, 리치하고 실리한 텍스처가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는 바디 크림. 시어버터, 코코넛오일 성분이 촉촉하게 수분을 공급하고 페뉴 드 스와레의 달콤하고도 우아한 향기가 은은하게 피부에 남는다. 190ml, 12만원.

15분 전, 고농축 테라피로 지친 피부 달래기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환경에서는 단시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붉은 기가 심해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건조. 마스크 속은 입김이나 땀 때문에 항상 습하지만, 입 주변 피부는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는 안티에이징의 최대 적이므로 환절기를 앞둔 지금 건성 복합성 피부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보습이다. 지성 피부라고 별반 다르진 않다. 과도한 유분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피부 속 땅김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안 후 얼굴이 조금이라도 땅기면 바로 수분 케어에 돌입해야 한다.

설화수 자음생앰플
6천 배 농축한 인삼의 에너지와 피부 상태를 극적으로 개선해줄 진생베리 성분을 사용 직전 활성화해 바르는 앰플. 한 번만 써도 자극받아 지친 피부가 빠르게 진정되고 힘을 얻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0g, 13만원.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30
순수 비타민 C 30%에 중년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붉은 열매 추출물을 더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이는 고기능성 앰플. 탄력 있고 팽팽하며 화사한 피부로 되돌려준다. 23g, 8만원.



MODEL: RA JI WON, MAKEUP: JAMIE YOON,
CHO AREUM/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10분 전, 안티에이징 케어로 피부 시계 되돌리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피부 재생을 위한 세포 활동이 활발해 손상된 피부를 치유하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시간대다. 불가피하게 이 시간대에 수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부 세포에 유효 성분을 전달해줄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유 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며 피부가 활력을 잃기 쉬운 이맘때에는 든든한 안티에이징 케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아모레퍼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을 컨트롤하는 애플루티™ 성분으로 탄력 저하, 팔자주름, 수분 함유량 저하라는 세 가지 핵심 노화 요소에 고루 작용하는 크림. 설화수의 진설크림은 적송에서 채취한 성분을 66배 응축한 레드 트레저™ 성분이 노화의 징후를 고루 완화해 젊은 피부를 선사한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수선화에서 유래한 나르시스 식물세포 성분으로 피부에 힘을 불어넣는 헤라의 안티에이징 제품들도 주목할 만하다. 시그니아 세럼과 크림은 3백만 개의 나르시스 식물세포로 윤기와 탄력, 균일도, 주름 등을 개선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공하고, 시그니아 루미네스스 래디언스 퍼밍 세럼은 나르시스 식물세포와 다이아몬드, 골드, 흑진주 성분이 노화되어 딱한 피부를 맑게 되돌리고 탄력을 높여준다. **10**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하고 밀도 높은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바르면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팽팽해진다. 50ml, 50만원.



설화수 진설크림
적송의 안티에이징 성분과 상양삼 성분이 피부에 힘을
불어넣어 탄력 있고 윤기 나는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60ml, 47만원.



헤라 시그니아 세럼&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개의 나르시스 식물세포를 담아 피부에 젊음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토털 안티에이징 세럼과 크림.
세럼 50ml, 22만원, 크림 60ml, 28만원.



헤라 시그니아 루미네스스 래디언스 퍼밍 세럼
나르시스 워터에 3대 보석을 더한 골든 리퀴드
텍스처가 빠르게 스며들어 광채 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해준다. 40ml, 14만5천원.

트렌디 컬러로 완성한 스모키 메이크업

이번 시즌 아이 메이크업의 대세는 스모키! 블랙뿐 아니라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완성한 4가지 스모키 메이크업을 숙지하길.

LOOK 1. BRICK SMOKY

브릭 컬러를 이용한 스모키 아이는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최고다.



STEP 1 헤라 섀도 듀오 #11 원섬 중 진한 마호가니 컬러를 눈머리부터 눈꼬리 쪽으로 바른다.
STEP 2 마호가니 컬러를 언더아이라인 앞머리에도 발라 눈매에 깊이를 더한다. **STEP 3** 펄이 감도는 피치 컬러인 레드우드를 쌍꺼풀 라인 위쪽에 살짝 덧바른 뒤 그라데이션해 포인트를 준다. 너무 많이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으니, 살짝 펄감만 줄 것.

헤라 섀도 듀오.
#11 원섬, 4g,
3만8천원.

LOOK 2. BLACK SMOKY

블랙 스모키 아이를 새롭고 트렌디하게 연출하고 싶으면, 언더아이라인에 블랙 라인을 그려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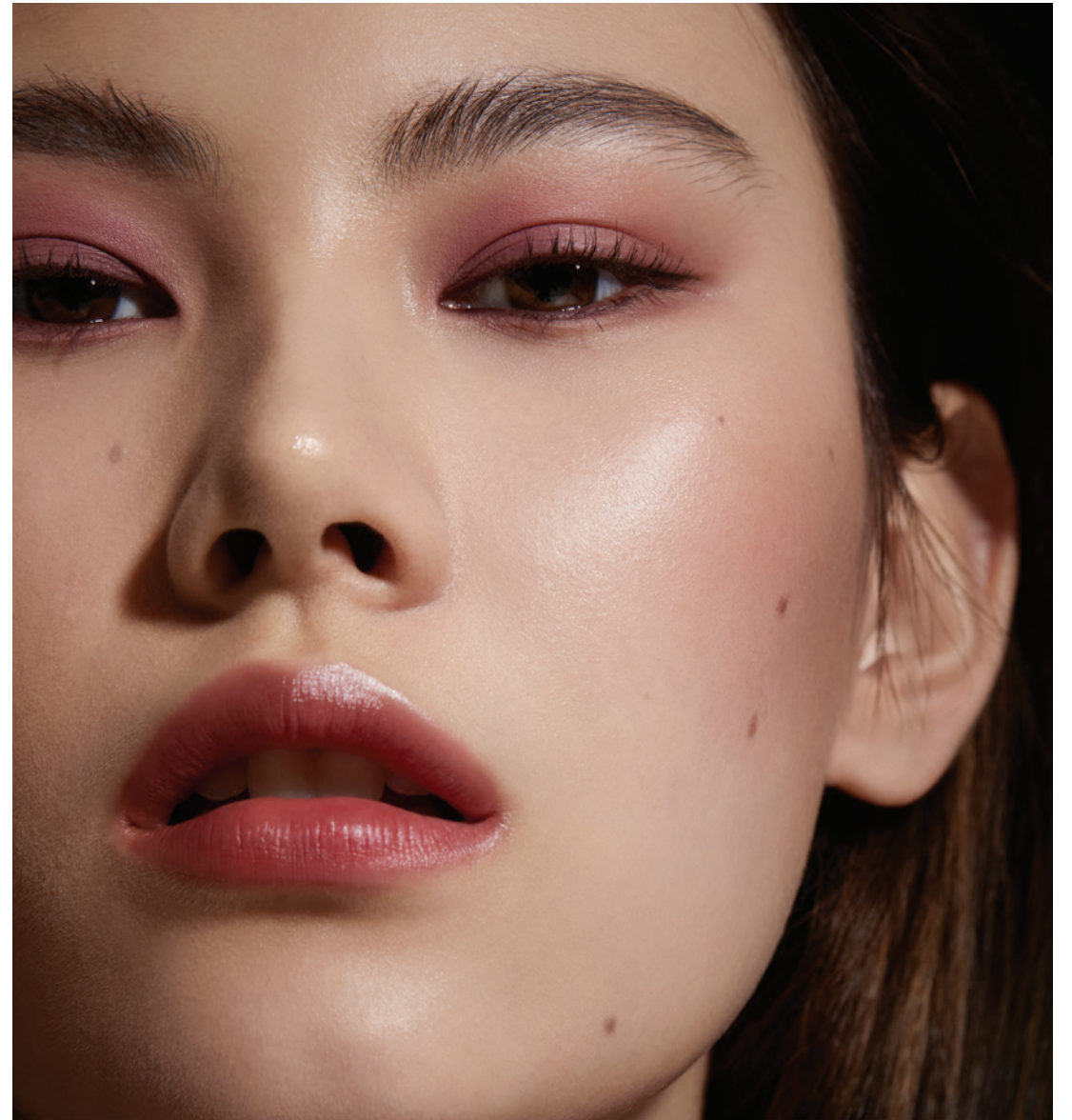
STEP 1 헤라 섀도 듀오 #02 이지고잉의 베이스 컬러인 비스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바른다.
STEP 2 포인트 컬러인 새들 브라운을 눈꼬리와 언더아이라인에 바른 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01 블랙으로 점막을 메우고, 언더아이라인을 그린다. **STEP 3** 언더아이라인을 부드럽게 스며지한 뒤, 헤라 리치 롱래쉬 워터프루프 mascara #79 래쉬 블랙을 속눈썹에 동뿔 바른다.

헤라 섀도 듀오.
#02 이지고잉,
4g, 3만8천원.



LOOK 3. BROWN SMOKY

블랙 스모키의 강렬함은 유지한 채 보다 부드러운 느낌의 브라운 스모키.



LOOK 4. ROSE SMOKY

핑크 뉘앙스가 더해진 스모키 아이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숙녀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준다.



MODEL: ARA, MAKEUP: LEE YOUN SUN, BAEK CHANG HOO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메이크업은 물론 안티에이징까지 럭셔리 쿠션의 진화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주름이 줄고 탄력이 붙는다면? 열광하는 세럼의 효과를

쿠션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이 꿈같은 이야기가 설화수 진설 세럼 쿠션으로 현실이 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설화수 진설 세럼 쿠션 SPF50+/PA+++

①

쿠션, 안티에이징을 담다

설화수 진설 스킨케어의 핵심인 Red Treasure™ 성분 함유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공한다. 임상 시험 결과*, 사용 8주 후 눈가 주름 9.3% 감소, 탄력 15.6% 증가, 피부 수분량 21.4% 증가되었을 정도.

②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

세럼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주름 부각 없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터치할 때마다 느껴지는 탄력핏 담지체의 탱탱한 탄력감이 피부에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고객 조사 결과**, 큰 주름 커버 만족도 95%, 잔주름 커버 만족도 100%로 나타났다.

③

섬세하게 빛나는 럭셔리 스킨

다이아몬드 파우더 함유로 어느 각도에서나 섬세하게 빛나는 궁극의 럭셔리 스킨을 완성해준다.

추천 포인트

POINT 1

메이크업은 물론
안티에이징까지,
럭셔리 쿠션의 진화

POINT 2

주름 부각 없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

POINT 3

섬세하게 빛나는
럭셔리 스킨의 완성

*시험 대상: 5069 한국 여성 31명 /
시험 기간: 2020년 9월 2일~
10월 28일(8주 사용 결과) /
시험 기관: 아이이씨코리아(주)

**조사 대상: 3554 한국 여성 38명 /
조사 기간: 2021년 1월 18일~24일 /
조사 기관: LEENOA 컴퍼니

“평생 단 한 가지
쿠션 컴팩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단연 이 제품.”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화장을 했나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
피부는 완벽하다. 잡티는 물론
요철과 주름까지 가려준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모델에게 발라주면
무슨 제품이나고 묻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하이드로 앰플
막 스파에서 관리
받은 것처럼 매끈하고
촉촉한 수분 탄력 피부로
가꿔주는 4주 프로그램
에스테틱 앰플.
5ml×12ea, 12만원.

수분, 안색, 탄력 한 번에 살려주는 특효 앰플

건조해서 생기는 잔주름과 탄력 저하, 칙칙한 안색까지.
건조로 인한 노화를 한번에 해결해줄 특효 처방이 등장했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추천 포인트

POINT 1

피부 층층이 적셔주는
3중 파워 수분

POINT 2

비타민 B₃, C, E
3중 광채 케어

POINT 3

BX 펩타이드와
리얼 콜라겐의 탄력 케어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하이드로 앰플

①

피부 깊숙이 적셔 오래 가는, 피부 속 수분 저수지
3중 파워 수분

미네랄이 풍부한 고성 해수와 피부 생체수 유지 시스템
셀바이오플루이드싱크™가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히알루론산과 베타인 수분 자석 성분이 피부 속 수분을 머금어 오래 유지해
준다. 수분이 쉽게 증발하여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피부장벽케어 성분
베타글루칸과 트레할로스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근본을 케어한다.

②

안색 케어로 환하게 빛나는 맑은 피부

비타민 B₃ 성분으로 잡티를 개선하여 맑은 안색으로 가꿔준다.
또한 탁월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유도체와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③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라인의 핵심 탄력 성분이 가득

놀라운 탄력 개선 효과로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라인을 단숨에
베스트셀러로 끌어올린 일등 공신, BX 펩타이드 성분과 인체 유사율 99%
리얼 콜라겐, 살 EGF 등 핵심 탄력 성분과 산수유 추출물이 첨가되어
수분 케어와 동시에 탄력 케어까지 할 수 있다.

“사랑하던 리리코스 앰플이 단종되어
슬펐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제품이
나타나 너무나 반갑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촉촉하게만 만드는 앰플이
아니다. 피부를 쫄득하게
잡아주는 느낌까지 든다.”

-<마리골레르>뷰티 디렉터 윤취진

“피부가 건조해서 사용했는데,
피부 톤까지 개선된 느낌.
만능 앰플이에요.”

-<마리골레르>뷰티 에디터 김상은

차원이 다른 보습

사용 후 수분감이 바로 사라지는 미스트는 있어라. 100시간 보습이 지속되는

프리메라 워터리 크림의 성분을 그대로 담아 강력한 보습 효과를 전하는 크림 미스트가 등장했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미스트

①

**피토스테롤 랩 테크놀로지™로 완성한
촉촉하고 오래 지속되는 보습력**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의 핵심 성분인 피토스테롤을 미세하게 쪼개
안정화한 피토스테롤 랩 테크놀로지™로 담아 크림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보습감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피부 진정,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②

탄탄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주는 유효 성분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
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한 유사 세라마이드와 건조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리코리스 추출물, 그리고 피부에 수분과
생기를 더해주는 알파인 베리 콤플렉스를 함유해
속에서부터 탄탄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③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단계뿐 아니라 목과 팔다리 등 진정과
보습이 필요한 곳 어디에든 수시로 뿌리면 건조해 땅기는
증상과 여러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만능 아이템이다.

추천 포인트

POINT 1

오래 지속되는
강력한 보습 효과

POINT 2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 성분 함유

POINT 3

속에서부터 탄탄하고
생기 있는 피부

“보습과 진정을 위해 애용하는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의
성분을 그대로 담아 믿을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미경**

“내외부 스트레스로
지치고 연약해진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이 든다.”

-〈마리끌레르〉뷰티 에디터 **김현민**

“뿌리고 나면 오히려
건조해지는 다른 미스트와
달리 수분감이 오래 지속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미스트**
피부 진정과 컨디션 회복에
탁월한 피토스테롤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판테놀을 함유한
크림 미스트. 피부 속부터
차올라 오랫동안 유지되는
보습감을 선사한다. 120ml,
2만5천원.

블랙쿠션, 하이엔드 패션과 만나다

헤라 블랙쿠션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제이백 쿠튀르'와 만났다. 완벽한 포몰리에 패션 하우스의 세련된 감성까지 더해 소장가치를 높인 리미티드 에디션, 헤라 블랙쿠션 쿠튀르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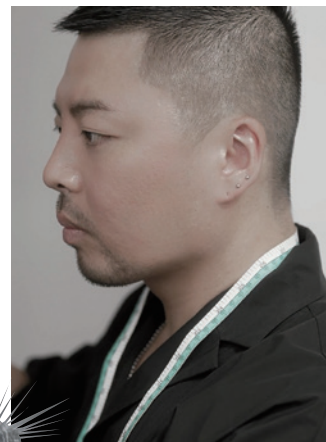
블랙, 그 이상의 블랙

언제 어디서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련된 여성의 필수품, 헤라 블랙쿠션. 피부가 갑갑하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놀라운 보정 효과와 지속력을 발휘해 화장을 막 시작한 대학생부터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는 커리어 우먼, 짧은 시간에 메이크오버가 필요한 주부까지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헤라 블랙쿠션이 올해 4월 쿠션 컴팩트의 새 지평을 여는 뉴 블랙 쿠션으로 진화했다.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피부에 편안하게 밀착하는 커버력에, 24시간 유지되는 지속력은 기본. 여기에 더해 아시아 여성 2천 명의 피부색을 연구해 본연의 피부에 가장 잘 어우러지는 '가장 나다운 컬러'로 구현해준다. 헤라는 '맞춤복처럼 내 피부에 딱 들어맞는 컬러와 피팅감'이란 블랙쿠션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도록 특별한 컬러베레이션을 선보인다. 플리츠 디테일과 섬세한 브레이슬릿으로 쿠튀르 패션의 고급스러움을 더한 헤라 블랙쿠션 쿠튀르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여자가 사랑하는 제이백 쿠튀르

내 몸에 딱 맞는 오토 쿠튀르 드레스처럼 서울 여성의 피부에 딱 맞춘 컬러와 텍스처를 지닌 블랙쿠션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헤라가 선택한 디자이너는 제이백 쿠튀르를 이끄는 백지훈. 입는 사람의 몸에 완벽하게 피팅되면서도 활동하기 편한 테일러링과 고급스러운 켈링 플리츠 디테일로 수많은 셀럽과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제이백 쿠튀르의 정신과 헤라 블랙쿠션의 철학이 일치하는 것이 선정 이유다. 하이엔드 K-패션의 선두 주자인 디자이너 백지훈 역시 이에 동의한다. "컬러베레이션 제안을 받고 어떤 것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이백 쿠튀르가 보여주는 오토 쿠튀르가 어떤 건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헤라가 보였습니다. 블랙쿠션이 아무도 흉내 내지 않고 스스로 '난 나야'라고 당당히 외치며 피부 표현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쿠튀르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이백 쿠튀르의 시그니처인 섬세한 켈링 플리츠로 장식한 쿠션과 패션 액세서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브레이슬릿, 그리고 특별한 패키지를 오랫동안 즐기 수 있게 도와줄 리필까지 포함된 헤라 블랙쿠션 쿠튀르는 10월부터 소진시까지 한정 수량으로 판매 할 예정이니, 서둘러 구비해 메이크업뿐 아니라 패션의 품격까지 높여보길.



헤라 블랙쿠션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디자이너 백지훈의 드로잉. 섬세한 플리츠와 리본 디테일이 아름답다.



헤라 블랙쿠션 쿠튀르
하이엔드 쿠튀르 브랜드
제이백 쿠튀르와
컬러베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헤라의 블랙쿠션.
15g×2ea, 6만원.

PERFECT HARMONY

헤라 블랙쿠션 쿠튀르의 3가지 구성품

헤라 블랙쿠션 쿠튀르 본품

제이백 쿠튀르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하이퍼 럭셔리 디자인이 돋보이는 본품. 장인정신을 발휘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한 핸드메이드 케이스와 소장 가치가 더욱 높다.

헤라 블랙쿠션 쿠튀르 리필

특별한 한정판 케이스를 오래 누릴 수 있도록 오리자널 쿠션과 동일한 구성의 리필이 포함되어 있다.

멀티유즈 브레이슬릿

본품을 둘러싸고 있는 브레이슬릿은 쿠션과 분리해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로 활용 가능해 소중한 사람이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도 그만이다.

HOW TO USE BRACELET

블랙쿠션 쿠튀르에 포함된
브레이슬릿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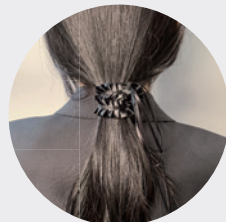
팔찌로 활용

팔목에 둘러도 보기 좋지만, 셔츠 소매를 살짝 걷은 후 묶으면 제이백 쿠튀르의 옷을 입은 듯 시크한 룩이 완성된다.



초커로 활용

네크라인이 깊이 파인 원피스나 재킷 혹은 흰 티셔츠 위에 초커처럼 두르기만 해도 룩에 에지를 살릴 수 있다.



헤어 액세서리로 활용

곱창밴드, 빅 헤어밴드 등 헤어 액세서리가 대유행 중. 내추럴하게 묶은 머리에 포인트를 주기 좋다.

UPGRADE YOUR BASE MAKEUP

남들과 똑같은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유난히 들뜨거나 두꺼워 보이는가? 그렇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 해볼 것. 한결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STEP 1



퍼프에 쿠션 포클러를 묻혀 양쪽 뺨 중앙과 이마에 한 번씩 터치한다.

STEP 2



퍼프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마 중앙에서 헤어라인 쪽으로 톡톡 두드리며 펴 바른다.

STEP 3



코는 퍼프에 남은 양으로 터치해 가볍게 보정하고, 퍼프를 반으로 접어 콧방울과 팔자주름 등 퍼프가 잘 닿지 않는 부분을 섬세하게 커버한다.

STEP 4



눈두덩이와 눈 밑 애교살에 퍼프 끝부분으로 잘 펴 바르면 끝.

MODEL: CHOI MYUNG JIN,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
CHA MIN KYUNG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오늘의 할 일: 눈가 주름 예방하기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아 자극에 취약한 눈가.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를 잘 보내지 않으면, 이번 겨울 눈가에 주름 하나가

더 자리 잡을지 모른다. 지금 바로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

editor LEE SUNG JIN
photographer CHOI MIN YOUNG

나이 드는 속도보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한 번 생기기 시작한 주름은 건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깊고 길게 자리 잡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핑계로, 혹은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걸 소홀히 하기 쉬운 요즘에는 자외선이 눈가에 바로 닿아 주름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매일 아이 메이크업에 공을 들이며 눈가를 자극하고, 클렌징 후 남은 메이크업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한다. 눈가 관리에는 계절이 따로 없지만, 건조한 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주름이 더 쉽게 생기므로 지금이야말로 주름 관리의 최적기.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수분이 부족하면 콜라겐과 탄력섬유가 잘 생성되지 않아 주름이 생기기 쉬우므로 하루에 물2L를 수차례에 걸쳐 나눠 마시는 것이 좋다. 실내 습도가 적정 수준인 50~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를 틀고, 세안은 자주 하지 않되 한 번에 제대로 해서 자극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끼면 눈이 쉽게 피로하고 건조해지며 무의식중에 눈을 찌푸려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나 블루라이트 역시 눈과 눈 주변을 피로하게 만들어 노화를 촉진한다. 그러므로 장시간 밝은 곳에 있거나 디지털 기기를 보는 것을 피하고 사용 도중 잠시 눈을 떼 휴식을 취하며 손가락으로 눈 주변을 지그시 눌러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자는 습관도 중요하다.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워 자면 장시간 피부가 눌러 주름이 생기기 쉬우므로 반듯이 누워 자는 것이 좋다. 눈 위에 팔을 올리고 자는 자세



1.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 30ml, 9만원.
2.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20ml, 13만원.

역시 자극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효능이 우수한 아이 케어 제품을 골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눈가는 2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만큼 일찍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관건. 눈가 주름에 특효를 보이는 성분은 많지만, 그중 제일 믿음직한 것은 역시 레티놀이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 네 가지 중 하나인 레티놀은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

해 주름 완화와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빛, 산소, 열에 민감한 데다 적정 농도를 벗어나면 자극이 될 수 있어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 1994년부터 레티놀 안정화 기술을 연구해온 아이오페가 지속적인 연구 끝에 선보인 10세대 레티놀, 레티놀 포 링클은 순수 레티놀을 항산화 성분으로 감싸 보다 빠르고 강력한 효능을 보인다. 함량에 따라 0.1%, 0.3% 두 가지로 선보이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개발한 3중 차단 용기에 담아 사용하자 2주 만에 깊은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인다. 레티놀 제품이 처음이라면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 여기에 익숙하거나 평소 레티놀 제품을 꾸준히 써왔다면 레티놀 포 링클 0.3%가 알맞다. 좋은 제품을 골랐다면 이제 잘 바를 차례. 아이크림의 경우 양이 과하면 눈가 피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데, 최적의 함량으로 제안하는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은 쌀 한 톨 분량만큼만 써도 충분하다. 손을 깨끗이 씻은 뒤 네 번째 손가락 위에 덜어낸 제품을 눈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살살 펴 바르면 된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눈 주변의 혈점을 자극하는 것도 좋다. 눈꼬리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을 관자놀이 쪽으로, 눈썹 앞머리 아래 속 들어간 부분을 아래로 내리듯, 눈 안쪽과 콧대가 만나는 부분을 코 쪽으로 밀듯 3초 정도 눌러 지압하면 끝. 주먹을 쥐 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마디가 만드는데 편평한 부분으로 눈 아래부분을 살짝 누른 후 좌우로 흔들 듯 마사지하면 혈액 순환을 돕고 경직된 눈가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 10

editor LEE SUNG JIN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남자도 피부 때문에 고민한다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바르는 남자라 할지라도, 분명 좋은 피부를 갖고 싶을 것이다.

지금, 내 남자가 피부에 맞지 않는 스킨케어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스트레스를 받아 불살이 폭 꺼진 것 같다면, 활력을 불어넣는 안티에이징 케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자 피부의 적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생성되는데, 그 양이 과다할 경우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 비타민 C까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어하는 데 쓰게 된다. 스트레스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피부 관리에 필요한 영양분을 끌어다 쓰는 격이니, 거울 속 얼굴이 웬지 푸석해 보이는 건 결코 느낌 탓만은 아닐 것이

다. 이때 필요한 것이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력을 더해줄 안티에이징 케어. 헤라 옴 블랙 퍼펙트는 블랙 트러플과 아사이베리 추출물로 만든 블랙 퍼펙트 블렌딩™ 성분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고 활력을 더해 외부의 스트레스 맞서 건강하게 지켜준다. 마치 타고난 듯 건강한 피부로 되돌려주는 제품으로, 시트러스 허브 그린 우드 계열의 젊고 프레시한 향이 매력적이다.

◀ 헤라 블랙 퍼펙트 2종 세트. 옴 블랙 퍼펙트 스킨 150ml + 옴 블랙 퍼펙트 로션 150ml + 옴 블랙 퍼펙트 스킨 20ml + 옴 블랙 퍼펙트 로션 20ml + 옴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20ml, 11만원.



부쩍 건조한 날씨에 주름이 느는 것 같다면, 수분과 청량감을 더해주는 스페셜 케어

오피서베이 20~49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부가 건조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수가 지난해 대비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피부는 원래 수분 함유량이 적은 데다 스킨케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바짝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스크까지 착용해 더욱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가을의 한복판에 선 이맘때, 피부 속을 촉촉하게 채워두지 않으면 겨우내 메마른 피부가 노

화의 지름길을 걷게 될지 모르니 당장 수분 케어에 돌입해야 한다. 헤라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라인은 자작나무 수액 성분으로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고, 천연 보습 인자인 베타인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해 진정시켜준다. 리코리스 우드의 감각적인 향과 오드 우드의 파워풀한 향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춰 아무거나 쓰지 않는 남자라도 만족할 만한 제품이다.

◀ 헤라 매니시모 인텐시브 2종 기획 세트.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100ml +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전 100ml +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30ml +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전 30ml, 14만원.



칙칙하고 거친 피부가 신경 쓰인다면, 5대 문제를 해소해줄 에너지 케어

칙칙하고 거친 피부를 찾은 야근이나 회식 탓으로 돌리기엔, 어젯밤 너무 일찍 집에 돌아오진 않았는가. 피곤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축 처져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난다면 모닝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멀리하고, 매일 세안 후 에너지를 담은 스킨케어를 꼼꼼히 챙겨 바르길 권한다. 헤라 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은 타우린과 카페인 성분이 피

부의 힘을 끌어올려 맑고 건강한 피부로 바꿔주는 에센스 효능의 안티에이징 스킨. 헤라 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은 부드럽고 산뜻한 우유 크림과 같은 제형으로 번들거림 없이 산뜻한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목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과도한 피지, 늘어진 모공, 건조, 칙칙한 피부 톤, 주름 등 남성 피부 5대 문제를 해결한다.

▶ 헤라 에너지 리부팅 2종 기획 세트. 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125ml + 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 110ml + 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20ml x 2ea + 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 20ml, 8만원.



마스크로 인한 자극 때문에 매일 괴롭다면, 촉촉한 진정 케어

남성들의 변치 않는 피부 고민 1순위는 역시 피부 트러블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에 따른 자극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일어나자마자 하는 면도, 하루 종일 끼고 있는 마스크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습기와 세균, 미비한 클렌징으로 인한 각질과 건조, 여기에 알코올이 듬뿍 든 스킨케어 제품 사용으로 인한 자극까지. 피부는 자극에서 벗어날 새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가

진 남성들에게 권하는 것은 프리메라의 맨 오가니언스 라인.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는 마로니에 씨앗과 개모마일 추출물이 피부에 활력을 더하고,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은 마로니에 씨앗과 센타우리 추출물이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고 번들거리지 않는 것은 두 제품의 공통된 특징. 시트러스 플로럴 우디 계열의 향도 산뜻하다. ▶

◀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180ml, 3만원.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150ml, 3만원.

한 편의 이야기 같은 집

검은 바닥과 새하얀 벽면,

그리고 그 안을 꽉 채운 다양한 색의 오브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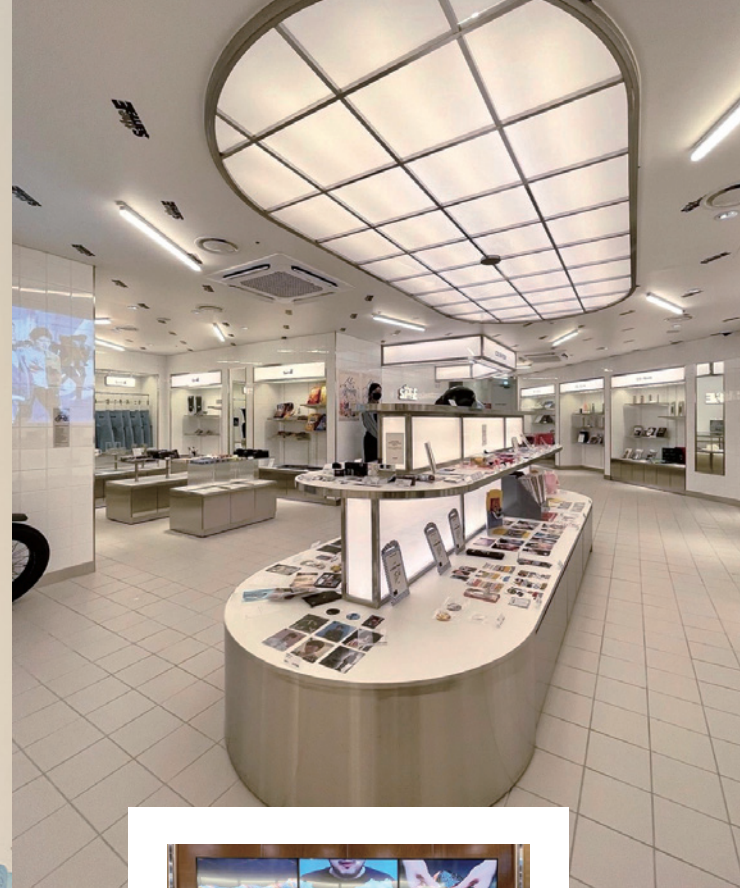
판지 스튜디오 양재운 대표,

강금이 실장의 집은 부부와 두 아이가

써나가는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감각적인 이탈리아인 혹은 프랜치 다이닝 레스토랑이 줄이어 들어선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 꽃무늬 벽지와 손으로 그린 유리 네온사인으로 무장한 '도산분식'이 처음 들어섰을 때 나온 반응은 실로 충격에 가까웠다. '빵집은 포근해야 한다'는 정석이라도 있는 듯 목재와 따뜻한 조명으로 꽉 채우던 패턴에서 벗어나 스틸 컨베이어 벨트를 배치한 '아우어 베이커리'도, 멕시코의 구멍가게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꾸준히 포토 스폿으로 각광받는 '나이스웨더'도 남다른 아이디어로 감탄을 자아낸다. 이 모든 것은 양재운 대표와 강금이 실장이 이끄는 '판지 스튜디오'의 작품이다.

"둘 다 미술을 전공해서 작품을 만들 듯 인테리어를 해요. 사실, 미술은 전공하거나 관심이 크지 않는 한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게 잘 답답했어요. 미술관 안에서 하는 작업이 싫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는 달

랴요. 저희는 인테리어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중적인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미술 전공자들이 차린 회사답게 판지 스튜디오의 첫 프로젝트는 미술관에서 시작됐다. 아이들을 위한 전시에 미술 작가로 초청되었는데, 그들은 기나긴 전시 관람에 좀이 쑤셨을 꼬마 관객들을 위해 가만히 서서 감상하는 대신 올라타거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 체험형 전시가 드물던 시절, 두 사람을 초대한 큐레이터조차 의문을 품었던 이 전시는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 일은 두 사람을 본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길로 이끌었다.

사실, 미술을 전공했다고 해서 인테리어나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과 결과물 자체가 크게 다른 않을 거라는 것이 두 사람의 말. 하지만 이들은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이 자못 다르다.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기에 앞서 개념을 정립한 뒤 작업에 착수한다.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이것을 공간으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난포'라는 공간을 디자인한 적이 있어요. 클라 이언트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panjistudio_,
@panji_studio
양재운·강금이

2005년 판지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다양한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아우어 베이커리, 청기와타운 등 개성 있고 위트 넘치는 공간 인테리어로 주목받고 있다.





서 보낸 추억을 담고 싶어 했죠. 오랜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된 그의 경험과 제가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매혹된 색을 더해 공간을 채워갔어요. 할머니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걸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구요.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의 예전 사진과 클라이언트의 어릴 적 사진을 구해 아는 작가에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광경

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그림 덕분에 공간이 더욱 아름답게 완성된 것 같아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 공간에 클라이언트가 감동한 건 물론이다. 이렇게 공간마다 한 편의 드라마 혹은 다큐멘터리를 담다 보니 프로젝트에 따라 시간이 꽤 길게 걸리기도 한다. 판지 스튜디오의 대표적인 도산분식 프로젝트가 그랬다. 디자인 작업에만 무려 6개월 넘게 걸렸다고 한다. 그 긴 시간을 믿고 기다려준 것은 이전 프로젝트인 아우어 베이커리를 통해 쌓은 믿음 덕분이었을 터. 이렇게 진심을 다하다 보니 작업이 끝나면 종종 클라이언트와 친구가 되어 같이 운동을 하거나 캠핑을 즐기곤 한다. 판지 스튜디오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는 것 역시 한 프로젝트가 그다음으로 이어지고, 지인들이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넘쳐나는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들인 만큼,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집 역시 마치 동화 속 같다. 사실 검은 바닥과 하얀 벽, 노란 주방은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칠해져 있던 것.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컬러 조합이지만, 강금이 실장은 그 색들이 마치 이 집에 어서 들

어오라고 초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가 취미로 운영하는 가구 브랜드 METTU의 로고 컬러 역시 블랙, 화이트, 옐로인 걸 보면 이 집은 그들의 보금자리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네 가족은 그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채워 넣었다. “끔찍극한 가구들은 유명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책을 볼 때마다 위시 리스트에 올려뒀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 산 것들이예요. 가구는 물론, 소품도 절대 함부로 사지 않아요. 디자인이 심플해서 유행을 타지 않고,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만 심사숙고해 고르죠.



TIP

양재운 대표, 강금이 실장이 말하는 인테리어 & 가구 구입 노하우

1. 오래갈 수 있는 가구를 살 것
가족과 함께 숨 쉬며 이들의 것이 된 가구는 그 자체로 가족의 유산이다. 좋은 가구는 시간이 쌓이며 추억거리가 되지만, 철학 없이 대량생산 가구는 쓰레기가 되기 쉽다. 빨리 소모하는 일회성 물건이 아니라, 충분히 고심해 가족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가구를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2. 벽면을 비워둘 것
안락함이 우선인 주거 공간은 갤러리 같은 중성적인 뉘앙스일 때 더 멋스러운 것 같다. 무언가로 벽을 꽉 채워두면 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온전히 휴식할 수 없고, 변화를 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되도록 벽은 비워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진이나 그림 등을 걸었다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심 있는 것들로 채울 것
집은 나와 가족의 공간이어야 한다. 누가 권한다고, 어떤 것이 유행이라고 함부로 들이지 말 것. 유행을 쫓다 보면 또 다음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남의 말을 듣고 산 물건은 이내 쓰레기가 되기 십상이다.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거기에 맞는 것만 고심해서 들여야 한다.

우리가 시간을 공유한 가구는 한참 후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된 뒤에도 그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깐요. 시간과 함께 곳곳에 낙서가 되어 있고 흠집도 났지만 추억이 가득 쌓일 이 가구들은 소중히 사용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어느 하나 허투루 들이지 않는다는 그의 말마따나 이 집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다. 곳곳에 배치한 양재운 대표의 진열대에는 그에게 영감을 주는 점시, 찻잔, 인형 등이 가득하고, 고급스럽고 값비싼 가구를 ‘모시고’ 사는 대신 아이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장난치고 뛰노는 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의 초감각적 색들은 양재운 대표와 강금이 실장에게 늘 좋은 자극이 된다. 색과 추억,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공간. 그 속에서 오늘날 네 식구는 그들만의 동화 속 한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다. **MD**



기묘한 디저트

독특한 재료, 범상치 않은 모양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디저트가 매력적인 공간들.



editor KIM SUN HEE, LIM SU AH
photographer LEE SEOK YEONG

RECOMMEND
망고 패션프루츠
아이스크림과 태국식
참쌀밥
태국의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떠올리며
개발한 메뉴.



솔티밥

‘올드 페리 도넛’의 세컨드 브랜드인 한남동 아이스크림 가게 ‘솔티밥’이 태국 디저트 망고 스티키 라이스에서 착안한 신메뉴를 출시했다. 바나나잎 위에 망고 패션프루츠나 시리얼 밀크 아이스크림을 올린 후, 현지 방식을 따라 코코넛을 활용해 만든 참쌀밥을 곁들였다. 아이스크림과 밥의 조합이 생소하지만, 입 안에서 복합적인 풍미를 내 의외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민트 초콜릿 특유의 상쾌한 향을 선호한다면 라벤더 티를 우유에 우려 만든 아이스크림 ‘라벤더 허니’도 맛보길 권한다.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하며 최근 넓은 그늘을 드리우는 야외 테라스를 새롭게 단장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66
영업시간 수~월요일 13:00~20:00, 화요일 휴업
문의 @saltybob_seoul



원형들

을지로 카페 겸 와인 바 ‘섬광’의 주인장이 아래층에 디저트 바 ‘원형들’을 오픈했다. 상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원형의 식재료가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디자인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고수를 활용한 케이크 ‘고수 크림’은 레몬 크림이 고수 특유의 향과 잘 어우러져 고수가 낯선 사람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 달콤한 맛과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권아망’은 마늘종 크림치즈와 안초비, 감태, 로메인 등을 올려 개성을 살렸다. 디저트에 곁들이기 좋은 각테일도 파는데, 라임 리큐어를 넣은 ‘민트’는 형광빛이 감도는 초록색을 띠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간결한 디자인의 가구를 들이며 단출하게 꾸민 공간은 이곳의 이상하고 실험적인 메뉴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길 38 4층
영업시간 월~토요일 14:00~21:00, 일요일 휴업
문의 @wonhyeongdeul

RECOMMEND
고수 크림
고수를 갈아 넣은
제누아즈와 크림으로
만든 케이크. 레몬
크림과 고수의 향이
조화를 이룬다.



RECOMMEND
이모지 케이크
위트 있는 표정을 그려
넣은 디저트. 사각형의
생크림 케이크, 원형의
초콜릿과 말차 케이크
중 선택할 수 있다.

텅플래닛

맛을 음미하고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혀가소통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획한 ‘텅플래닛’. 음료와 디저트, 가구,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카페를 지향하며 성수점과 신사점 두 곳을 운영 중이다. 실내 곳곳의 독특한 가구와 오브제처럼 디저트 또한 흔치 않은 비주얼을 자랑한다. 혀 모양 접시에 담긴 사각형의 ‘이모지 케이크’가 대표 메뉴로, 시트와 생과일 필링을 겹겹이 쌓고 생크림으로 덮은 뒤 위트 있는 표정을 그려 넣었다. 후에 뒤덮인 듯한 형태의 ‘스톤 초코 무스’는 씹사름한 초콜릿 무스와 새콤한 체리의 조합이 매력적이다. 요거트, 바나나, 블루베리로 만든 ‘스페이스 프로즌’을 비롯한 일부 음료는 9월까지만 맛볼 수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1길 31 4층(신사점)
영업시간 매일 13:00~21:00
문의 @tongue_planet



RECOMMEND
가지 화이트 와인
비니거 밀피유
커커이 쌀은 치즈,
달콤한 화이트 와인에
적신 가지, 타임을
활용해 만든 디저트.

띠웃

‘맛의 질감’이라는 뜻의 ‘Texture of Taste’를 줄여 이름 지은 조그마한 디저트 숍 ‘띠웃’. 자연에 대한 사랑을 담아 황토로 만든 쇼케이스에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만든 디저트들이 놓여 있다. 최근 소금과 바닐라 빈, 커피의 풍미가 조화로운 ‘신안 소금 캐러멜 티라미수 타르트’를 새롭게 출시했다. 화이트 와인에 적신 가지의 식감이 독특한 ‘가지 화이트 와인 비니거 밀피유’를 비롯한 일부 메뉴는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다. 음료는 콜드브루나 ‘문경 오미자 매화꽃 모히토’를 곁들일 수 있다. 토마토와 복숭아를 농장에서 직거래로 들어오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10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41길 4
영업시간 목~월요일 12:00~20:00, 화~수요일 휴업
문의 @teot_dessert



RECOMMEND
블랙 미니 롤
오레오를 재해석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미니 롤 케이크. ‘블랙
에이드’와 특히 잘
어울린다.



#Y존장벽보호세정
#약산성여성청결제
#프로바이오틱스*청결제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



@ssodooi

지난여름, 습해진 날씨 탓에 더 걱정되는 Y존을 위해 고유의 산성 보호막을 깨뜨리지 않고 피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여성 청결제 후리애후리를 썼어요. 젤 타입이라 샤워하며 쓰기 편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날에도 쓸 수 있을 만큼 순해서 더 좋더라고요.



생생한 제품 평가

프리메라 후리애후리를 체험해 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SUNG JIN

@alohanimo_

Y존에 특화된 약산성 프로바이오틱스 여성 청결제로 냄새와 피부 톤을 모두 관리해주는 후리애후리를 선택했어요. 은은한 향까지, 사용해보고 더욱 반했어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xcara27x

여성들이 갖고 있는 남모름 Y존의 3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 나만의 비밀템! 장벽이 매우 얇은 Y존을 위해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세정제 후리애후리를 선택했어요. 향기도 순하고 피부에도 순하면서도, Y존 피부 환경은 건강하게 유지해준답니다.



@1heeee

이름부터 마음에 쏙 드는 후리애후리! 젤 텍스처와 풍성한 거품, 은은한 향까지 모든 것이 제 취향을 저격한 제품으로, 냄새는 물론 피부 톤까지 Y존 특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답니다. 이번에도 역시, 프리메라가 냄새까지 덜어줘서 너무 좋아요.



@dkdud5070

생리 전, 민감할 때 쓰기 딱 좋은 약산성 여성 청결제예요. 거품이 많이 나는 제형이나 버블형은 잘못 쓰면 따가운데, 후리애후리는 아기 화장품처럼 순한 데다 은은한 허브 향이 냄새까지 덜어줘서 너무 좋아요.



@euni_hyn_

프리메라라서 믿고 써본 후리애후리!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약산성의 순한 제형이 Y존을 부드럽게 케어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해 건강하게 가꿔줘요.

◀ 프리메라 후리애후리

여성의 민감한 Y존 피부 건강에 유익한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용해물이 흐트러지기 쉬운 Y존의 환경을 지켜주고, 검은콩 유래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제품. 200ml, 2만7천원.



@lady_uzine

운동을 많이 하고 샤워를 자주 하는 편이라 자칫 예민해질 수 있는 시크릿 존 케어를 위해 후리애후리를 쓰고 있어요. 도톰한 젤 타입이라 쓰기 편하고, 은은한 향과 촉촉한 마무리감도 마음에 들어요. Y존의 피부 장벽을 보호하며 세정할 수 있는 약산성 여성 청결제,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jihyea87

내 Y존은 소중하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한 제품! 향도 인위적이지 않고 성분이 순해서 매일 사용해도 자극이 없어요. 쓰고 나면 청량한 느낌이 들고요. 민감하고 연약한 Y존 케어는 후리애후리로 하세요.



@ming_9li

민감하고 연약한 Y존 케어를 위해 후리애후리를 써요. 투명하고 끈적한 젤 타입으로 쓰기 편하고, 거품이 많지 않아 씻어내기 좋아요. 은은한 향 덕분에 더욱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씻고 나면 한결 촉촉해진답니다.



@style_bytia

수영과 수상 레저를 즐기는 터라 민감한 시크릿 존 세정에 더욱 신경 써야 했던 지난여름, 매일 사용해도 자극 없는 리퀴드 젤 타입인 후리애후리 덕분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세정, 보습력, 은은한 그린 플로럴 향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파리지엔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세련미의 대명사 파리지엔

그들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정수는 무엇일까?

writer LEE JI EUN

프랑스 여자, 더 정확하게는 파리지엔만큼 닮은 주제도 없을 것이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파리지엔'을 검색해보라.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 <파리지엔은 남자를 위해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는다> 같은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제목의 책과 '웰 에이징', '프렌치 시크', '파리지엔으로 일주일 보내기' 등등의 연관 검색어가 주르르 뜬다.

파리에서 산 지 20년이 넘었고, 프랑스인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며, 프랑스 장식미술로 밥벌어 먹고 사는 처지라 파리지엔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정말로 프랑스 여자들은 잘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건지, 무심한 듯 멋스러운 파리지엔의 비결은 무엇인지, 요즘 파리에선 어떻게 유행하는지 등등.

대답부터 하자면 프랑스 여자들이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며, 무심한 듯 멋스럽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파리에는 딱히 유행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런 대답은 상대를 맥 빠지게 하기 일쑤다. 베레모를 쓴 화가나 줄담배를 피우는 작가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진 파리지엔의 이미지는 단편적이며, 그 대부분

은 현실과 1백만 광년쯤 거리가 있다. '카페 드 플로르'에서 소콜라쇼를 마시며 <르몽드>를 읽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고 바게트를 옆구리 낀 파리지엔은 파리에 없다. 카페 드 플로르의 테라스에 앉아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는 사람들,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의 충성도 높은 고객은 태반이 외국인이다. 그렇다면 진짜 파리지엔은 무어나고, 파리지엔이 있거나 한 거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파리지엔이 도마에 오르면 3시간씩 이어지는 저녁 식탁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진짜 파리지엔이 무언지는 프랑스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다. 하지만 모두 다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파리지엔은 검은 돌 사이의 흰 돌만큼이나 프랑스의 다른 지방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인들이 파리와 파리 주변을 일드 프랑스, 프랑스의 섬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파리는 뉴욕이나 베를린처럼 메트로폴리탄이다. 파리에는 파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사람보다 프랑스 지방이나 외국 출신이 더 많다. 단지 오늘날만이 아니라 18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파리는 그 시절에도 유럽 문화의 중심지에서 성공을 맛보고자 하는 궁정인과 귀족, 예술가가 몰려드는 도시였다.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더 나아가 유평을 형성했던 화가들은 어떤가. 피카소나 사강은 워낙 오랜 세월 파리에서 체류해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파리지엔 같았다. 그러니까 단지 파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냈다고 해서 파리지엔이 되는 것은 아닌 셈. 파리에 관한 가장 걸출한 에세이를 남긴 헤밍웨이가 미국인인 것처럼 말이다. 파리를 가장 파리답게 만드는 건 바게트나 베레모처럼 지극히 프랑스적인 상징이 아니라 파리를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다. 당연히 파리지엔의 DNA에는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호기심이 크나큰 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인이 사랑하는 시인 보들레르가 팬스레 그 어떤 희한한 나라에 대한 뜨겁고 기발한 환상과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향수와 열병을 노래했겠는가.

파리에는 베이징 뒷골목에 숨어 있을 법한 분위기와 맛을 자랑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이스탄불 여인들이 드나들 듯한 터키탕과 스파가 있으며(심지어 이런 곳은 마사지사도 걸쭉한 아랍어를 구사하는 아줌마들이다) 인도의 고급 샐리부터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샴푸와 비누까지 무엇이든 오리지널 그대로

설화수 '아름다움은 자란다'

'아름다움은 자란다'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애 모든 순간에 본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로 구할 수 있다. 파리지엔이라면 파리 어느 동네에 아프리카 미용실이 많은지, 세네갈산 후추와 모로코산 과일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 지, 인도 여인들의 머릿기름은 어디서 파는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아야 한다. 다른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는 데 활짝 열려 있는 파리지엔의 다문화적 면모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파리지엔 특유의 감성과 태도를 결정지었다. 모두 알다시피 인종과 문화권에 따라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기준은 다르다. 탄탄한 초콜릿색 피부에 두툼한 입술과 하얀 이를 가진 아프리카 여성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반짝이는 금발에 지중해를 닮은 파란 눈을 가진 북유럽 여성의 아름다움도 있다. 유럽인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찰랑이는 직모에 노란 기가 살짝 감도는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진 동양인도 빼놓을 수 없다. 누가 덜 아름답다고도 더 아름답다고도 할 수 없다. 머리색이나 피부색부터 언어와 체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라서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가 없다.

파리지엔에게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지극히 상대적이고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개념이다. 파리지엔은 남을 흉내 내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태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율여를 파리 지하철을 뒤덮은 패션 브랜드 H&M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파리지엔의 시선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햇살 아래 바다를 배경으로 아프리카인, 아랍인, 동양인, 유럽인 등 인종과 몸매와 나이가 각양각색인 모델들이 대거 등장한다. 정형화되지 않고, 범주화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모델들의 파워는 대단해서 마르고 길기만 한 기존 모델들을 순식간에 촌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존중은 완벽하지 않지만 매력적인 프랑스 배우들의 당당한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다. 벌어진 앞니를 교정하지 않고 매력 포인트로 삼는 바네사 파라디와 레아 세이두, 보톡스나 필러 주사를 맞는 대신 살을 조금 찌워서 주름살을 방지한다는 카트린 드뇌브, 무슬림이라는 문화적 정체성

을 숨기지 않는 레일라 베크티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 대신 개성 넘치는 얼굴로 스크린을 압도한다. 게다가 이 배우들은 스크린 속 동경의 대상을 뛰어넘어 신실한 생활인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데 거침없다. 정치적인 문제부터 개인적인 문제까지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공연히 피력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비단 배우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은 너나없이 달려드는 유행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왔다.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어울리는 건 존재하지 않는 데 남이 하는 걸 따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게 파리지엔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파리지엔 사이에서 소문을 타고 전해지는 유행 상품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이름만 들어도 이국적인 그 어딘가에서 공정부역으로 거래되는 향료, 할머니가 전해준 비법으로 만든 크림,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여인들이 직접 바느질해 만드는 쿠션. 즉 파리지엔은 문화적 배경이 담긴 상품에 열광한다. 마치 18세기 파리지엔들이 중국 도자기를 수집하고 일본 자개판이 달린 화장대를 구하지 못해 안달한 것처럼.

파리는 1백 년이 하루 같은 도시다. 18세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루브르 미술관의 긴 회랑을 지나 센강을 건너다. 파리의 회색 주철 지붕과 벽돌색 골목, 모란디의 그림 속 색채 같은 모래색 벽,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하는 타일 바닥, 프렌치 블루라고 부르는 차분한 파란색 덧문, 비가 오면 더욱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초록빛 공원 의자... 하지만 파리를 가장 파리답게 만드는 것은 1백 년이 하루 같은 도시에서 숨 쉬고 걸으며 자신만의 개성과 사연으로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사람들. 파리지엔은 파리의 그늘 아래 피었다 지는 들꽃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 파리지엔에게서 미장원에서 막 나온 듯한 헤어나 메이크업, SNS에서 수만 개씩 볼 수 있는 유행 아이템에 대한 냉소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자. 냉소야말로 파리지엔을 가장 파리지엔답게 만드는 무기니까 말이다. **◆**

이지은

파리에서 활동하는 장식미술 감정사이자 사학자로 <귀족의 시대 탐미의 발견>, <부르주아의 시대 근대의 발명>, <유럽 장인들의 아틀리에>, <사물들의 미술사 1 액자>, <사물들의 미술사 2 기적의 의자>, <사물들의 미술사 3 오늘의 의자>를 집필했다.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10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1.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하이드로 앰플 피부 층층이 적셔주는 3중 파워 수분과 풍부한 탄력 성분이 막 스파에서 관리 받은 것처럼 매끈하고 촉촉한 수분 탄력 피부로 바꿔주는 4주 프로그램 에스테틱 앰플. 5ml×12ea, 12만원.
2. 바이탈뷰티 슬리머디엑스하루 한번, 마시는 것만으로 복부지방을 포함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슬리밍 앰플. 추석 연휴에 늘어난 체중을 관리해보길. 25ml×30앰플, 9만원.
3. 구말 파리 페뉴드 스와레 바디 크림 실크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듯, 리치하고 실키한 텍스처가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는 바디 크림. 190ml, 12만원.
4.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미스트 피부 진정과 컨디션 회복에 탁월한 피토스테롤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판테놀을 함유한 크림 미스트. 120ml, 2만5천원.
5. 헤라 UV 미스트 쿠션 피부에 빛이 흐르는 듯 리치글로우 하이커버가 24시간 지속되는 쿠션. 15g×2ea, 6만원.

보석처럼 귀한 차나무 씨앗으로
보석보다 눈부신 광채의 탄생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나이트 엘릭시어



AMORE PACIFIC

